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 25일까지... 일반과세자 등 100만명에 세금비서 서비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일반과세자 522만명, 법인사업자 123만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118만명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올해는 간단한 문답으로 신고서를 자동 완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부 일반과세자를 포함해 100만명에게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가 대상이다.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국세청 측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중기부, 'R&D 우수 중소기업' 공모... 50개사 선정 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참여 활성화를 위해 R&D 우수성과 중소기업 50개사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사업화(경제적 성과), 전략기술(기술적 성과), 한계·재도전(위기 극복 스토리), 공공혁신(공공·사회 기여) 등 4개 분야에 걸쳐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중기부장관 표창, 기획홍보, 해외전시, 후속 R&D 추진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우수성과 사례를 '중소기업 R&D 대표성과 50선'으로 브랜드화해 매년 사업화 성과확산 주간행사를 개최하는 등 홍보 강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중소기업 R&D 우수기업 선정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장 만난 AI 업계... 투자자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요청

광주 지역 인공지능 기업 경영자들이 11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벤처기업 개인 투자자 소득공제 확대 등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이날 광주AI창업캠프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창업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김형수 인공지능기업협력센터장은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며, 세금 고민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전했다.

정우주 주식회사 인디제이 대표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에게 '자금 확보'는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기업의 자금 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최근 챗지피티(ChatGPT)의 등장 등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우리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7월 진행 중인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등 기업지원 정책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인공지능 분야 등 국내 창업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적극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